

## 한국이 개판

임락경 (목사, 강원 화천 시골교회)

### 개의 용도는 파수꾼

가축은 원래 산짐승, 들짐승이었지만 새끼 때부터 먹이 주고 쓰다듬어 주어 기르면 사람을 따르게 된다. 산축, 들축이 가축이 된 것이다. 가축하면 주로 소, 돼지, 염소, 닭, 오리 정도로 1-2 마리씩 집에 두고 집에서 나온 음식찌꺼기, 벌레 먹은 곡식, 찔겨, 콩 껍질 등으로 돈들이지 않고 길러서 소, 말은 일 시키고 돼지는 관혼상제 때나 아니면 명절 때 잡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는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두 점씩 나누어 먹게 되고, 잡고 구경하는 이들은 내장 끓여 나누어 먹고, 발목은 젖 안 나오는 여인 뒀이 된다. 머리는 당연히 쟁상에 오르게 되고 뼈 국물은 기력이 쇠한 노인네 뒀이 된다.

소는 부잣집에서나 큰 잔치에 잡게 되지만 부자라고 다 잡는 것이 아니다. 노랭이 아니고는 부자가 될 수 없기에 그렇다. 염소는 약으로만 썼고 닭 역시 큰일 있을 때 3-4 마리 잡고 고기는 삶아 잘게 찢어서 그릇에 조금씩 넣고 국물에 쌀 넣고 죽을 쑤어 온 마을 사람

이 고루 나누어 먹었다. 아껴둔 암탉은 사위 올 적에나 잡아서 4촌, 6촌까지 불러 즐겼다. 오리는 약으로나 썼고 꿩, 토끼, 사슴 모두 가축이 아니었다.

개는 가축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따르고 주인을 잘 알아보는 짐승이라서 집 지키는데 꼭 필요한 짐승이다. 그렇지만 역시 부잣집에나 필요한 짐승이지 가난한 집에서는 잃어버릴 물건이나 흠쳐갈 돈이 없기에 시끄럽기만 하고 먹일 양식도 음식찌꺼기도 없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기에 아버지께 생선뼈 발라먹는 법부터 배웠다. 내가 자랄 적엔 우리 집에서 개를 기른다는 생각을 못해 봤다. 개 한 마리가 사람 한 식구와 마찬가지로 먹기 때문이다. 개는 가끔씩 영양상태가 안 좋아 죽어가는 사람의 약으로 쓰려고 잡았다. 개가 가축이나 아니냐하고 논의하다가 가축의 분류에서 빠졌고 축산법에서 빠져 법에 적용하기가 애매해졌다.

똑같은 밥을 가지고 임금님이 먹는 밥은 수라상이고 어른들이 먹으면 진지가 되고 아이들이 먹으면 밥이 된다. 아이들 밥도 주인집 아가씨, 도련님이 드시면 진지가 되고 개가 먹으면 개밥이 된다. 개기를 수도 없이 가난한 집안에서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무슨 개고기를 먹는 것이 종교적으로나 건강상으로 좋으나 좋지 않으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귀해서 먹을 수가 없었다.

마을 전체에 부잣집에 개 몇 마리 있었는데 부자라고 다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부잣집에 소, 돼지가 있으면 음식찌꺼기가 소, 돼지 몫이 되었다. 큰 개는 사람 두 몫을 먹고 집안에 별 이익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1-2년 길러서 겨우 부잣집 약이나 보신용으로 쓰이지, 복날 머슴들 몸보신하라고 잡아준 부자들 한번도 못보고 자랐다.

개 종류라고 해야 진돗개 아니면 똥개였다. 진돗개는 희귀동물이어서 구경하기 힘들었고 똥개는 몇 집 어울려 개 한 마리 정도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똥싸면 개를 불러들여 훑아먹게 만든다. 그 때

는 기저귀가 없었다. 옷감이 귀한지라 어린아이들은 모두 벗겨놓고 길렀다. 오줌, 똥 그냥 방바닥에 누었다. 오줌은 싸면 걸레로 닦아서 빨고 똥을 싸면 개를 불러들였다. 방바닥에 싸놓은 똥을 다 먹고 뒷자리까지 깨끗이 훑아먹었다. 아이가 똥을 싸고 '위리'하고 부르면 어디서 알고 쫓아오는지 평소에는 마루에 얼씬도 못하던 개가 그때는 주인집, 남의 집 가릴 것 없이 안방까지 들어온다. 깨끗이 훑아 먹어야 걸레 빠는 수고가 덜어지기에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두드리면서 짹짹 하면 개는 기특하게도 깨끗이 닦아 먹는다. 그리고 좀 더 개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이들 똥구멍까지 훑도록 하면 똥 치는 작업이 완료된다.

우리 친척집에서는 큰 사건이 있었다. 친척집 아주머니께서 저지른 실수인데 형님 한 분이 어릴 적에 역시 개를 이용해서 똥을 치었는데, 똥구멍까지 훑아먹도록 하다가 개가 똥구멍만 씻어먹고 끝내야 되는데 그만 곁에 있는 불알까지 따먹었던 큰 사건이었다. 그 개는 물론 검사도 판사도 없는 즉결심판에 사형되었고 처형방법도 몽둥이로 쳐서 죽였고 개고기 역시 못 먹고 능지처참되었다. 그 형님은 그래도 성장하시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마을에도 가끔씩 있었다.

동네 개도 있었다. 산골에 10여 호 되는 마을에서 형편이 어려우니 공동으로 개를 한 마리 기르는데 이 개는 온 마을 사람들이 주인이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음식 남는 집에서 얻어먹고 제사지낸 집에서 물밥 얻어먹는다. 물밥이란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음식을 큰그릇에 골고루 조금씩 담아낸다. 비빔밥을 생각하면 간단하다. 밥 먼저 세 손갈 정도 뜨고 여기에 김치, 콩나물, 각종 산나물, 두부, 고기, 생선 넣는다. 그리고 사과, 배, 감은 칼로 조금씩 쪼개서 넣고 과자까지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을 빠짐없이 한 그릇에 담아 물을 말아서 문 밖에 짚을 깔고 벗짚 위에 붓는다.

물밥은 귀신 중에서 자녀 없이 살다 죽는 귀신들 몫이다. 또한 처녀, 총각들이 죽으면 아무리 큰 부자라도 제사를 지내줄 수 없다.

그것은 부모보다 먼저 죽은 죄도 있거니와 제사란 결혼한 뒤부터 지내기 때문이다. 그 제사 지내줄 수 있는 자녀들이나 부부가 없거나 어릴 적에 죽은 동자귀신, 결혼 않고 죽은 총각들의 몽달귀신, 억울하게 당해서 죽어 저승에 편안히 가지 못하고 다음 세상에 환생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을 합하여 잡귀, 잡신이라 한다.

우리 조상들은 제사에도 사랑과 동정이 있어 잡귀, 잡신을 위해서 문밖에 물밥으로 원혼을 달래며 제사지냈다. 또한 무당들이 잡귀 들러 신음하는 병자들을 찾아가 굿이 끝나면 잡귀, 잡신들 먼저 대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사음식을 먹는다. 또 아예 잡귀, 잡신들을 달래느라 강가나 개울가, 나무 밑, 벼랑에서 굿판을 벌이기도 한다.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을 달래려면 강가에서 굿을 해야하고 목매달아 죽은 귀신은 그 나무 밑에서, 벼랑에 떨어져 죽은 귀신은 벼랑 밑에서 해야된다. 처녀총각 죽은 시체는 주로 사거리 복판에 묻고 평토장을 했다. 편안히 장사지내면 그 원혼이 가족들을 찾아와 괴롭게 하기에 사거리에 묻어두면 사람들이 밟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가까운 가족들을 괴롭힐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나타나 가족들을 괴롭히면 그 때 사거리서 푸닥거리를 하게되고 이때도 역시 물밥은 빠지지 않는다.

이 물밥이 동네 개 똥이 되는 것이다. 매달 돌아오는 명절마다 제사지내고 집집마다 나오는 물밥을 동네 개들은 두고두고 저축해가면서 먹는다.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워 물밥이래야 큰 명절인 설, 추석 때와 조부모님 제사 때 외에는 물밥 챙기는 걸 못 보고 자랐다. 그 대신 좋은 점도 있었다. 잡귀, 잡신을 찾아 물밥을 주지 않으니 우리 집에는 잡귀들이 들끓을 생각을 못하고 잡귀들이 얼씬도 않는다. 바로 옆집은 부잣집이라서 수시로 몸이 아파 푸닥거리가 쉬지 않았다. 우리 마을은 100호가 넘는 큰 마을이어서 동네 개는 없고 가끔씩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물밥을 처리했다.

## 사냥개

나는 평야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냥개는 말만 들었다. 산이 있어야 사냥을 하는데 우리 고향은 평야라서 산이라야 야산이어서 겨우 핏, 산토끼 정도만 구경하며 살았던 것이다. 사냥개는 새끼 때부터 똥을 먹이지 않는다고 했다. 사냥개에게 똥이나 물밥을 주면 똥냄새, 물밥 냄새만 맡으며 산짐승 냄새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사냥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나서 문득 똥이나 물밥을 안 먹으면 무슨 수로 개를 기르나하는 생각도 들고 버려진 똥이나 물밥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사냥개는 사냥해서 주인을 먹여 살리고 자기도 고기 먹고 한평생 사는 것이다.

## 임실군 오수면(獒守面)

원래 임실군 둔람면 오수리가 오수면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개오(獒), 지킬 수(守)이다. 이름의 유래는 이렇다. 주인이 장에 갔다 술 취해서 산에서 자고 있을 때 산불이 났는데 개가 몸에 물을 묻혀 똥굴어 불을 꺼서 주인을 살리고 개는 지쳐 죽었다는 이야기다.

나무는 머리를 땅에 쳐 박고 살기 때문에 땅에서 기를 받고 땅에서 얻어먹어야 사는 것이고 짐승들은 머리를 사람을 향해 살기에 사람이 기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 사람이 먹이 주고 길들여서 여러 가지 이용하고 따르기도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도 하고 놀라게도 하며 사람에게 의해서 생사가 달려있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머리를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하느님에게 길들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생사가 모두 하늘님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느님을 공경하며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충성된 것이고 오수의 개는 주인을 한평생 따르다 주인을 위해 죽여주는 것이 개의 본분을 다한 것이었다. 그 개 때문에 지명이 오수가 되고 오수에 가면 마을 입구에 개의 동상이 있고 전설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오수에 만이라도 보신탕집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마을에서 개고기를 팔면 개의 녀이 주인을 위해 죽은 것을 후회하고 다시 태어난다면 사람들을 물어 죽일 작오가 서지 않을까 한다. 오수에 있는 보신탕집 주인이나 여기를 찾아 개고기를 먹는 개손님들은 오수(獒守)를 오수(午睡)로 잘못 아는 모양이다.

## 개는 가축 아닌 가축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아 무슨 한가지를 오래 할 수 없다. 소 기르면 돈 번다하면 너도나도 소를 기르고 정부에서 장리 까고 나면 소가 과잉상태라서 소값 파동나서 너도나도 망하고, 돼지 길러서 돈 번다고 하면 너도나도 길러 같이 망한다.

내가 사는 전방에는 군부대가 많은데 예전에는 잔밥이 나오면 군인들은 땅에 묻어버렸다. 미군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묻은 밥들이 아까워 인근 주민들이 도로 파다가 돼지나 개를 길렀다. 돼지는 더러 병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값이 맞지 않아 빛지는 일도 많았는데, 개는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고 관리하기가 쉬워 개가 제법 가축 노릇을 하게 되었다.

개사육이 축산업 축에 끼게되니 사료공장에서는 머리를 써서 개사료를 개발하였다. 이제는 군부대 잔밥이 없어도 음식점 찌꺼기가 없어도 손쉽게 개를 기를 수 있게 되었다.

## 한국이 개판, 대한민국이 온통 개판

이제는 개를 1-2마리 기르면 개 기른다는 말도 못 꺼낸다. 20여년 전부터 일동에 여자 집사 한 분이 개를 30여 마리 길렀다. 나는 직업이 양봉이라서 나를 만나면 꿀 목사라고 부른다. 나도 그분을 만나면 직업이 개사육 하는 이라서 개집사라고 부른다. 그 집에 초청해서 가면 온 집안 개가 짖어댄다. 집안이 모두 개판이다. 그 집

남편은 개 아저씨고 그 집 아들은 개집사 아들이고 그 집 딸은 개집 딸, 개집 계집애고 그 집 시어머니는 개집사 어머니다.

외양간에 소 한 마리 기르던 것이 지금은 목장이 되고 집집마다 1-2마리 기르던 돼지우리는 돈사로 바뀌고 닭 10여 마리 흠어진 곡식 먹여 기르던 것이 양계장이 된 것처럼 개도 이제는 기업화가 되어 간다.

시끄럽다고 짓지 못하도록 목청을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귀가 들리지 않도록 귀고막을 터뜨리는가 하면, 1-2마리 기를 땀 건강하던 개들이 대량사육으로 병이 나니 항생제 주사기 들고 산다. 이제는 마을마다 개들을 많이 기른다. 도시부근에는 더 많이 기른다. 여기에 맞서 보신탕집도 늘게 마련이다. 대한민국이 모두 개판이다. 가는 곳마다 개새끼가 짖어댄다.

## 우리 집도 개판

지난 여름 내가 늑막염을 앓게 되었다. 늑막염에 개고기 좋다는 것은 상식이 되어서일까 우선 가까이 사는 집에서 개 한 마리를 잡아다 주더니 멀리 고성에서부터 개 선물들이 들어온다. 그도 큰 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두고두고 기르면서 잡아먹으라고 큰 개, 중개, 작은 개, 강아지까지 몇 마리 싣고 왔었다. 포천에서 가져오고 의정부서 가져오고 이름짓기도 바쁘다. 집안에 없던 개가 생기니 아이들은 정이 들어 모두 다 기르려고 했다.

지나친 것이 모자람만 못하다. 물론 늑막에 개고기가 좋다. 개 한 마리를 먹고 나니 갑자기 싫어진다. 그 후로 안 먹었다. 꼭 싫어서 안 먹은 것이 아니다. 3년 전 골수암환자 한사람이 있었다. 무슨 음식을 평소에 많이 먹었냐고 물었더니 개고기를 끊이지 않고 먹어왔다고 한다. 게으른 여자한테 개장국보다 간단한 음식이 없다. 한번에 한 마리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채소만 준비해두었다가 아침에 데워서 채소만 한줌 넣고 전기밥솥에서 밥 한 공기 떠주면 된다.

그리고 나면 정력은 오죽하겠는가.

무슨 고기든 좋다고 지속적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또 자기 집에서 기른 개는 좋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예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다. 선달에 개고기 먹으면 재수 없다고 한다. 계절적으로 개고기는 여름철 음식이다. 음력 선달은 양력 1월로 소한, 대한이 들어있는 달이다. 정월도 역시 추운 계절이고 모든 명절과 제사가 겹친 계절이라서 피해야한다.

일년 내내 바쁘게 지냈던 보신탕 집은 선달만은 휴업을 하든지 다른 음식을 대치해서 운영했으면 한다. 꼭 재수가 없다고는 다른 사고가 나도 개고기가 뒤집어쓴다. 아무리 사철탕이라 이름지어도 선달 정월에는 손님이 없다. 영양탕이라 이름 고쳐도 개고기는 개고기다.

## 정기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독자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시는 사역 위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정기구독료 납부에 관한 일입니다. 정기구독 신청하신 지 1년이 지난 분들은 다시 구독료를 납부하셔야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로용지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온라인(계좌번호는 책 뒤 속표지에 있음)으로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